

# 한국, 에너지 소비 “세계9위”

BP, 2007년 세계 전체의 2.1% 차지 ... 소비증가율도 3% 높아

2007년 한국은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2.1%를 차지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에 이어 세계 9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9일 영국 에너지기업 BP(British Petroleum) 한국지사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의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전세계 평균보다 3% 높았다.

2007년 전세계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2.4%로 전년대비 다소 둔화된 양상을 보였지만, 10년 평균을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다. 2007년 금융시장의 혼란에도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제유가는 6년 이상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1861년 이후 가장 장기간의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북해산 Brent유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72.39달러로 11% 올랐다.

원유 소비는 1.1% 증가한 반면, 생산은 0.2% 하락했고, 가스 소비와 생산은 각각 3.1%, 2.4% 증가했다. 석탄 소비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 에너지는 여전히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2007년 현저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BP Korea는 7월10일 오전 COEX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국내 주요 에너지기업과 정부 인사, 주한 외교 사절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세계 에너지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BP는 전세계 에너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매년 세계 에너지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7/09>